

## 마가복음의 예수님(29) -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교회(막6:30-44)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약 이만 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오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적의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얼마든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자.

### 1.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기적의 출발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무리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졌다(35-36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타인에 대한 연민은 커녕, 자기만 아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기적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 2. 가진 것에 감사하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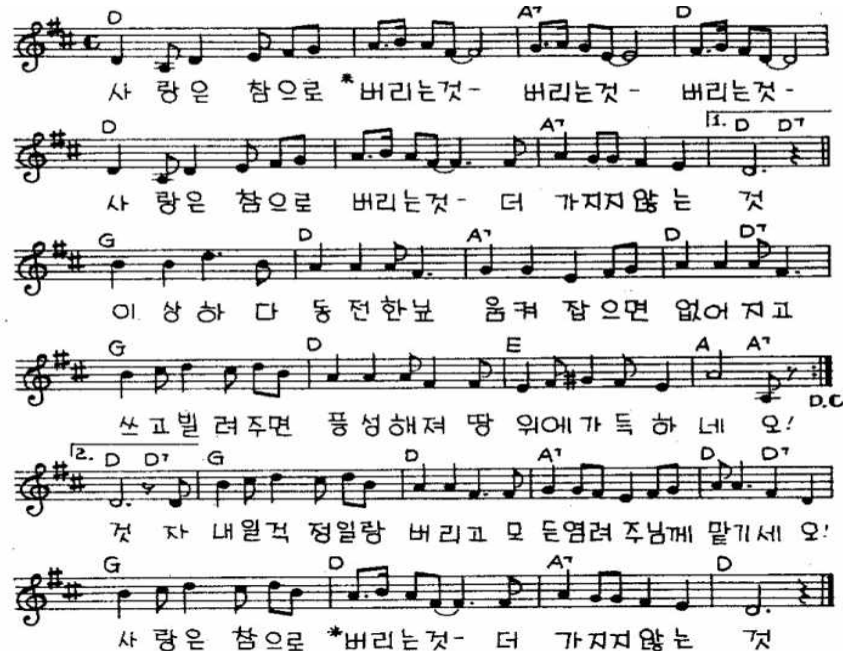
(41절上)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 기적의 두 번째 원리는 감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감사기도다. 바로 이들에게 감사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 바로 감사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을 내다 보고 계셨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다. 바로 현재의 감사는 미래의 축복이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상 속에서 믿음의 감사를 생활화하며 기적을 경험하자.

### 3. 사람들과 나누시는 예수님

(41절下)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마지막 원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나누는 일을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셨다.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떡과 물고기가 떼어도, 떼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난 것이다. 나누면 손해라는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강 건너 갯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산술법칙은 나눌수록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다. 현재는 심히 적은 것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나누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누는 일은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기적을 경험하자.

## 마가복음의 예수님(29) -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교회(막6:30-44)

1. 마음 열기 - 최근에 주변에서 받은 도움이 있다면?
2. 경배와 찬양 - 542장,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2. 섬기는 것    3. 베푸는 것    4. 다 주는 것

###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목장, 전도회, 교회)는 어떤가요? 배려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3) 나누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산술 법칙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산술 법칙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 해봅시다. 또한 이 나눔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3) 진행중인 "상반기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